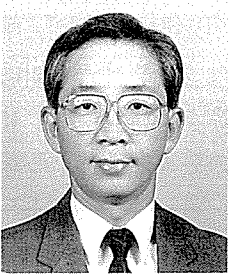


## 창립43돌...민족의학 세계화 先導

#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許 昶 會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는 1952년에 설립되어 전국 15개 시도에 8천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최근 한의계 전체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의 세계화운동을 선도하는 대한한의학회는 산하에 19개 분과학회가 있으며 21세기의 미래의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학술교류 등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許昶會)는 1952년 12월16일 설립되어 사단법인 의료인단체로 출범하였다.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한의 학술의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한의사의 권익 옹호사업과 의료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는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한의학 발전과 학술연구 및 회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의도의 양양 및 의권옹호에 관한 사항
- 한방의료기관의 기준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항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법인 또는 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
- 한의학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기관지 학술지 및 한의학 서적 발간에 관한 사항
- 한방의료 봉사에 관한 사항
- 한방의료제도, 한방의료보험제도의 조사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관계부처에의 건의, 협조 및 관계 부처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의 수행
- 환경보건, 사회개발을 위한 연구

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조정 및 공제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원은 국가로부터 한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누구나 가입하여야 하는데 1995년 3월 현재 전국 15개 시도지부에 분포되어 있는 회원수는 모두 8천명에 이른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학 교육기간은 모두 11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고 재학생은 약3천7백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의 한의계를 대표하는 대한한 의사협회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료보험 사업

한방의료보험사업은 지난 1987년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진료와 침구, 부항, 엑스산제 등 제한된 급여범위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의료이용에 불편이 호소됨으로써 단계적인 확대시행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한의계로부터는 의료 수가의 현실화가 요구되는 등 지속적인 제도 보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의료 수가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산제, 복합제 등 약제의 개선과 물리요법, 재료대, 방

재료 등의 산정 방법과 함께 침약의 의보적용 방법 등이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다.

산업재해 환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시행하고 자동차보험의 한방급여시행도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 한의학 연구 지원

1980년대 후반부터 차츰 한의학에 대한 육성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의료제도의 확충 움직임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한의학 육성노의가 본격화되면서 우선적으로 대두된 것이 국가 지원에 의한 한의학연구소 설립이었다. 그러다가 1993년 소위 한약분쟁을 계기로 정부가 한의학연구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하여 드디어 1994년 10월10일 정부출연에 의한 특수법인 한국한의학연구소가 역사적인 출범을 했다.

한의학제도가 수립된지 실로 40여 년만에 한의학의 현대적 연구체제가 실현된 것이다. 동연구소에는 한의사, 의사, 약사 등 전문인력과 함께 인접과학분야인 생화학, 의공학, 유전공학분야의 인력까지 확보하고 한의계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연구사업을 시작했다.

1차년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의학사 재정립 연구
- ② 한방의료보험 급여확대 모형 개발연구
- ③ 한방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단에 관한 연구
- ④ 한의 진단명과 진단요건의 표준화 연구
- ⑤ 약침 제제의 안전성 및 동통제거에 대한 연구
- ⑥ 노화방지를 위한 한약제의 효능연구

### 의료제도 개선사업

한의사의 공중보건 의사 임용을 위

하여 공중보건 한의사 업무를 개발하고 관계법의 개정, 국제협력의사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내에 한의약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한시적 운영기구인 한방 담당관실을 한의약국으로 승격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한의약분야에서 숙명적인 경쟁상대인 중국의 경우 위생부 산하에 방대한 조직의 중의약 관리국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되고 앞으로 민족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세계적 진출을 겨냥해서도 필연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밖에 한방 보조인력의 제도화, 한방 군의원 확대 임용,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한의사 학교의 임용, 초·중·고 교과서 한의학 관련내용 반영, 한의사 국가시험제도 개선 방안 등이 추진된다.

### 한의학회 추진사업

국내 한의학 학술진흥을 담당하는 기구로 대한한의학협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대한한의학회(이사장 신민규)는 최근 전체 한의계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의 세계화운동을 선도하는 학술조직으로 그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 산하에는 19개 분과학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내과분과학회(회장 임일규) △침구분과학회(회장 이준무) △외관분과학회(회장 김종호) △부인과분과학회(회장 박병렬) △소아과분과학회(회장 김장현) △본초분과학회(회장 한청광) △원전외사분과학회(회장 맹용재) △사상분과학회(회장 고병희) △신경정신분과학회(회장 이동진) △생리분과학회(회장 김원중) △병리분과학회(회

장 석성화) △물리요법분과학회(회장 김성수) △스포츠분과학회(회장 이명중) △방제분과학회(회장 강순수) △약침분과학회(회장 유기덕) △한의정보분과학회(회장 최석봉) △추나분과학회(회장 신준식) △맥진분과학회(회장 길영성) △의료기공분과학회(회장 김기욱)

이 가운데에 맥진분과학회, 약침분과학회, 추나분과학회, 의료기공분과학회, 한의정보분과학회 등은 최근에 한의학 영역의 개발확장과 함께 전공별 특화운동의 일환으로 신설된 학회 조직들이다.

대한한의학회는 이렇듯 학술조직의 특화 및 전문화운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초부문의 연구지원은 물론 임상 기술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한의학회는 각 분과학회별 학술활동의 지원외에 시도 지부별 보수교육도 주관하고 1년에 1회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학술지로 대한한의학회지와 분과학회지의 발간 등을 통하여 회원의 학술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 국제학술교류

대한한의학회와 국제위원회가 공동으로 한의학의 국제교류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한한의학협회는 94년도에 중국 중의약학회와 학술교류 증진을 위한 교류각서를 체결하고 양단체가 공동으로 중풍병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상호 유익한 학술성고를 거둔 바 있다. 그 결과 양국간에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협약하고 있다.

일본 동양의학회와도 정기적으로 학술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전통의학계와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카자흐스탄에는 국제협력의 사를 처음 파견하기도 했다.

미주지역에서는 중의학이 우세를 점하고 있는데 미국지부를 활성화시켜 한국의 한의학을 뿌리내리게 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6월 미국 현지에서 한국한의사회가 주도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10일~12일에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동양의학회에 요청으로 제8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를 힐튼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주제는 '난치병의 치료와 전망'이다. 그밖에 외국 전통의학자의 국내 초청 및 회원의 파견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국제학술교류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의학용어의 영역(英譯)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한·중·일 동양의학 공동연구

지난해 3월 金泳三大통령이 중국·일본 순방시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3국 동양의학 공동연구기금 조성을 제의하여 합의한 바 있다. 이후 한중간에 실무협약이 이루어졌고 일본과는 먼저 양국 학회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5천만달러를 목표로 양국간 공동연구기금이 조성되면 국내에 설치된 한국한의학연구소 내에 기금사무국이 설치되고 3국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전통의학부문의 장점만을 살려 획기적 의학연구 발전이 이룩될 전망이다.

### 의료정책 개발

대한한의학회는 정책기획위원회와 제휴하여 앞에서 설명한 국내 및 국

제학술부문진흥사업 외에도 낙후된 의료정책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94년부터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우수한 정보통신망(KOMA)을 구축하고 학술 및 정책자료의 전산화를 추진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의료제도개선 연구를 비롯한 각종 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21세기 미래의학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개발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학으로 한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전진기지가 필요하다는 전체 한의계의 공감속에 미래형 인텔리전트 회관이 건립, 추진되고 있는데 완공되면 분과학회별 입주도 계획하고 있다.

潘采鴻(한의신문 편집국장)

음악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작용을 활용하여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촉진하거나 회복시키는 방법.

음악요법은 널리 회화요법, 연극, 무용요법과 함께 예술요법(arts therapy)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음악요법은 감상을 중심으로 하고 한걸음 나가서 가창·연주·작곡·창작무용에 이른다.

현실적으로 음악요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정신지체자, 자폐증 등의 정신장애자, 히스테리 등 신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두드러진 효과가 있어 널리 보급되고 있다. 그런데 음악요법의 고전인 포돌스키(Edward Podolsky)의 '음악요법'(Music Therapy)(1954)은 다음 1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불안상태에 대한 음악요법
- (2) 노한 것을 누그러뜨리는 음악요법

### 음악요법

#### Music therapy

- (3) 우울증에 대한 음악요법
- (4) 신경쇠약을 완화하는 음악요법
- (5) 미움과 질투에 대한 음악요법
- (6) 급성비애에 대한 음악요법
- (7) 긴장성두통을 위한 음악요법
- (8) 심인성 위장장애의 음악요법
- (9) 고혈압에 대한 음악요법
- (10) 심장에 대한 음악의 효능

이중에서 (1)-(6)은 신경증을 다루고 (7)이하는 심신증의 음악요법에 해당된다. 대부분이 클래식음악이며 치료방법으로서는 우선 음악을 100여곡 처방하며 환자에게 매일 들으라고 지시한다. 이런 음악을 듣

는 가운데 환자의 증상은 차츰차츰 가벼워진다. 예컨대 불안신경증에는 비제의 '바기의 놀이', 우울한 상태에는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제2번', 신경쇠약상태에는 쇼팽의 '누턴' 등인데 포돌스키가 언급한 곡의 수는 모두 2백90여곡에 이른다.

음악요법의 문제점은 보급은 되고 있으나 이 요법의 심리적 기초나 치료체계와 같은 것이 아직도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환자가 좋아하거나 또는 증상에 적합한 음악을 필요로 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만으로는 자기해방이나 창조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확실하지 않다.

또 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음악자체에 치료의 본질을 둘 것인가 또는 음악은 어디까지나 수단으로서 치료관계의 충실에 중점을 둘 것인가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이 있다.